

을 추석연휴는 길어서 잘 하면 거의 일주일을 놓 수도 있다. 그 추석 연휴 때문에 벌써 시끄러운 곳은 어디일까? 귀성열차 예매?

아니다. 요즘 추석연휴를 고향에 내려가 보내려고 작정하는 기특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사람들의 시선은 해외로 향해 열려있으니 해외여행 항공권 예매가 벌써부터 달아올라 있다. 지금 예매해 두지 않으면 긴 연휴를 후회로 보낼지 모른다.

해마다 세계인구 한 사람이 한 번의 해외여행을 한다는 통계숫자도 있고(물론 1년에 여러 번 여행 다니는 사람들 숫자 때문에 그렇다), 한국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1년에 한 번 해외에 나간다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 속에 스며든 일상이 된 것일까?

그러나 해외 여행지에 나가 보면 어디서나 한국인과 만나게 된다. 해외여행이 드물었던 옛날이라면 만나서 서로 반기운 인사라도 했을 것이지만 요즘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는 모양이다.

더욱이 '해외여행이라고 다 같은 해외여행인가?' 식의 여행 패턴과 계층도 구분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서로 외면했던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부딪쳐도 외면하게 되고 때때로 물상식하다 싶은 한국인을 만나면 슬쩍 피해 버리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해외여행, 가는 만큼 오게하라

기도 한다.

그동안 값도 비교적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 왔던 여행사 패키지 투어도 이제 '주마간신'이 아닌 '천천히 오래' 각자의 취향과 깊이에 맞는 주문 식 여행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도 선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보다 공백진 곳, 모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새로운 여행지로 인기를 얻는다. 보다 괴상하고 열거적인 것을 찾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어느 방송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 사하라 사막의 베두인족에게 느닷없이 낙타오줌으로 세수하는 장면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다.

문화 선진국인 한국이 아직 원시적인 부족을 취재한다는 오만에 빠졌던 모양이다. 베두인족은 모래로 세수를 할망정 낙타 오줌으로 세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여행객이 해마다 늘고 이에 따른 수많은 일화들이 생기고, 패턴 역시 다양화 고급화되는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런 소비행태로 치부하려 한다.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8백 50만 달러에 달한다는 수치를 놓고도 '외화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어떤 패턴, 어떤 수준의 여행이든 개인적으로는 값진 투자다. 성숙이란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며 해외여행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국가적으로도 자산이 된다.

해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외국인을 불러들이면 될 일이다. 관광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며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최우선 순위로 장려하는 산업이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석 해외여행 예매가 벌써 불붙고 있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의 관광산업을 먼저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한번 못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귀띔 하련.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는 평생 그가 태어난 마을 이외에는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지만 선사(禪師)들의 깨우침에 비교되는 선철학으로 지금도 인류를 깨우쳐 주고 있다.

명도 일라는 있다. 감사능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 과제인 이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몇 개의 사회세력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움직일수록 못하는 소위 '사학커넥션'이라는 것이다. 종교사학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사학커넥션은 종교를 배경으로 교육계와 언론,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학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종교계가 발 벗고 나선다. 교육부는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착각하는 듯 적당히 덮으려 하고, 사학과 무관치 않은 일부 보수 언론들은 사학 입장에서 맹렬히 펜을 휘두른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 그 중에도 보수 정당일 수록 돈과 인맥이 있는 사학 편을 들기 바쁘다. 심지어 목사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삭발했을 때 한나라당 원내 대표 3명은 국회에서 삭발까지 했다. '종교-학교-교육부-언론-한나라당'이란 사학커넥션이 이유 있다는 반증이며,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유다.

건강한 교육을 되찾기 위해서 사학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사유재산·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왜 국민이 냉담한지, '사학=비리와 종교폭력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 종교의 근본에 충실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득권과 권위만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즐기는 사람은 권위를 얻지만, 단지 권위를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포브스 발행인 말콤 포브스의 말을 새겨 볼 때다.

불자의 눈

회향의 참 모습 보인 현응스님

수행자스님에게 돈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은 물욕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가르치셨다. 본질적인 욕망을 끊지 않고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행자라면 물욕을 끊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수행자에게 돈의 가치는 '풀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최근 수행자의 자리에서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스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이 훈훈했다. 부산 영일암의 현응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현응 스님은 최근 중앙승가대 와 동국대 그리고 불교TV에 각각 1억원을 회사했다. 스님이 회사한 돈이 사찰 인근의 관광단지 조성 등 관련 보상비라고 한다. 전통사찰의 일부 스님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수리비용을 횡령하거나 전용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현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외형적인 불사에 여념이 없는 스님들에게도 불사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더구나 현응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근의 학생들과 향원이 어려운 환자 돌봄에 발 벗고 나섰으며 승용차 휴대용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은 스님도 있고 돈을 잘 못 쓰는 스님도 많다. 수행자에게는 돈을 쓰는 것도 수행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행은 범부중생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회향되어야 할 것이다. 현응 스님처럼 말이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증언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E.H 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연속선 위에서 규정된다. 일제강점기가 남긴 아픈 역사는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아픔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잊혀지고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세대가 바뀌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역사는 인식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가 20일 전주여고 700여 학생들 앞에서 일제의 '종군위안부 만행'을 증언했다. 자신이 역사의 폭력에 무방비로 당했던 그 나이의 어린 후손들 앞에서 차마 떠올리기도 끔찍한 과거를 증언한 것은 '있었던 일'이 '있었던 일'로 기억되길 바라고 때문이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유력 매체에 광고를 실으면서까지 부정하려는 그 '있었던 과거'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눔의 집이 전국 8개 고교에서 순회 증언을 한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증언을 듣는 학생들의 오열과 참혹해 하는 눈빛에서 우리의 불행했던 시간이 부끄럽고 민중화합의 미래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순회 증언을 고등학교의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어른' 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증언은 대선 정국 속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어른'들도 한 번은 들어야 할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종교자유’ 칼럼

17. 사립학교법 바로 보기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권위의식 버리고 초심으로”

현대사회는 자유·평등 같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 사법(헌법)은 물론 의료·복지·교육 분야는 오히려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공공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의료법·사회복지법·사립학교법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종교분야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반사회성을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학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보수 종교계 간의 기싸움으로만 비쳐지거나, 일부 보수 언론까지 끼어들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동안 사학재단이 목청을 높이면 '재산권·자율성 침해'나 '종교교육 자유의 제한' 등은 이미 억지임이 드러났고, 그 외의 몇 가지 주장 역시 무리한 것들이다.

첫째, 얼마 안 되는 비리사학을 잡기 위해 모든 사학들을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게 어울리다고 한다. 비뚤어진 뿔을 잡기 위해 소 잡는 격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회계조작, 횡령, 채용 및 급식 비리 등 수십 개 사학들의 비리

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수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극소수 운운할 염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더구나 종교사학들을 함께 고려하면, 문제사학이 극소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다. 480여 개 종교사학에서 자신의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종교교육과 종교차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속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수는 수십 만 명이 될 것이 아닌가.

둘째, 개정 사학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라는 세력이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될 확률은 5.3%, 개방형이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27%라고 한다.

그 인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저 상징적인 개방일 뿐이다. 사학재단들의 입장은 이것저것 노출되는 것이 결코 좋거나 편견에 의한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물론 전교조의 성격, 투쟁의 내용과 방식 등에 동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역사적으로 공과가 분명히 평가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전교조를 지목해 불필요한 과장과 원색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자극하고 호도하는 것은 교육



사학의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보호를 위한 공청회.

자적인 태도도 종교인의 심성도 언론인의 정도도 아니다.

셋째, 비리사학은 현행법으로 엄중히 다스리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는냐는 주장이다. 그렇듯하다.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동안 비리에 비교적 자유로운 일부 사학들이 함께 매도되며 규제 받게 되는 게 억울하며 즐기게 해오던 예기다. 그러나 그동안 사학운영에 관해서 설립자 개인의 자질과 선의에만 의존함으로써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감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교육부 감사기구의 규모나 전문성이 그 많은 사학들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변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Yungachon-do) featuring a table of branch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12 items for purchase.